



이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우리 나라 엄마젖 먹이기를 생각한다

-라레체 리그 회의에 갔다 와서-

라레체 리그(La Leche League, LLLI)는 스페인어로 '엄마 젖'이라는 의미인데 전 세계적인 엄마 젖 먹이기 민간 단체이다.

역사를 보면 1956년 당시 미국의 모유수유율은 20%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젖 먹이는 엄마 7명이 한 고등학교에 모여 이 모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래는 젖먹이는 엄마가 다른 엄마를 도와주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1964년에는 국제단체로 승격하였고 1970년부터 LLLI의 영향으로 모유수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미국의사회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았고 1979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세계아동기금(UNICEF)의 영유아 영양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고문 자격을 얻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100명의 라레체 리그의 리더가 3,000개의 엄마 그룹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화 상담,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문헌 출판, 국제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엄마 그룹의 리더는 젖을 먹이고 있거나 젖을 먹인 경험을 가진 엄마로서 소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지역에서 원하는 엄마들을 모아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젖먹이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직접적 후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63개 국가에서 300,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LLLI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국제 회의는 격년으로 열리는데 18차 회의가 2003년 7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리더와 젖먹이는 엄마들과 그 가족으로서 수백명의 참가자들이 힐튼호텔에 모였고 젖 먹이기 단체답게 여기저기서 아기들 우는 소리도 들렸고 또 젖을 먹이는 엄마들도 많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같은 분위기였는데 실제의 훈련과정과 정보 교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LLLI 의사 세미나도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올해로 31회였다. 이 세미나는 미국의 소아과 학회, 산부인과 학회와 공동 개최였고 미국 가정의학과는 후원 학회로 등록되었다. 참가자는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참석하였고 전문가의 강의도 듣고 토론이 있었으며 물론 새로 나온 정보도 있었다. 여러 나라의 BFHI(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위원회) 위원도 참석하여 따로 모임을 갖고 각 나라의 현황을 비교하고 토론하였다. 유니세프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의 원칙하에 활동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활동 양상도 많이 달랐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국가 정책으로 젖먹이기 운동을 주관한다고 한다. 그 중에도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정을 받은 병원은 정부가 각 분만마다 10%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결과로 많은 병원에서 젖 먹이기에 앞장서고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의 프라크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여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분유회사의 횡포때문에 고전하고 고민하는 나라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 규약(1981)을 위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다고 한다.

2000년의 보고를 보면 분유회사는 산모들에게 분유나 유아용품의 샘플을 무료로 배포하였고 산모들의 면담에서는 45%가 의료인의 권장으로 특정 분유를 선택한다고 하였고 무료 샘플을 받았기 때문에 특정 분유를 선택한 엄마도 27%나 되었다.

가장 중요한 분유 캔의 라벨에서는 분유의 부적절한 준비과정으로 인한 위험과 의료인의 처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가 붙어 있지 않았고 '모유화' 등 분유를 이상화하는 문구도 포함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유회사는 인쇄물, 잡지, 인터넷 등에 분유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유회사의 행태는 전부 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분유회사의 상업성은 많은 아기들에게서 엄마 젖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아기의 젖 먹을 인권을 무참히 뺏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력한 아기를 누군가는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갖

고 있고 아기를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기가 분유(소젖)를 먹고 자라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또는 어떤 해를 받게 되는지 등 올바른 정보가 절대 중요하다. 국가는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하고 우리 나라 정부도 동의한 '모유 대체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분유회사는 적어도 이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료인도 막중한 책임을 의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는 아기를 절대 보호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PPFK



↑ 엄마젖 최고 사진입상작, 허미연